



## 중국 경제 지형도 변화 조짐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중국 동부 연안지역은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,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었던 중부와 서부지역은 성장세가 빨라지면서 중국의 경제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동부 연안지역을 대표하는 광둥(廣東)성은 2012년 1/4분기 7.2% 성장하여 전국 평균 성장률(8.1%)에 미치지 못한 반면,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쓰촨(四川)성과 산시(陝西)성은 같은 기간 각각 13.1%, 13% 성장함.
-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동부 연안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, 중·서부 지역은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.
  - 2012년 1/4분기 중 동부 지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8.9% 증가하였고 서부 지역의 고정자산 투자는 26.9% 증가함.
-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도 동부 지역의 성장세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.
  -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동부 지역은 부동산 과열 방지 정책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반면, 중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의 경제와 산업이 이전해 오면서 활력을 보임.

■ 쓰촨성을 포함한 서부 지역의 2012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전국 평균을 상회함.

- 서부 지역에 속하는 구이저우(貴州)성, 산시(陝西)성, 안후이(安徽)성, 장시(江西)성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1/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각각 15%, 13%, 12.3%, 11% 증가함.

■ 동부 지역은 경제 위축과 더불어 제조업 산업의 중서부 지역 이전으로 인구 유입이 감소함.

- 광둥(廣東)성의 선전은 대표적인 이민도시<sup>1)</sup>인데 경제 위축과 물가 급등으로 유입 노동력이 선전시를 이탈함.

1) 전체인구 1,400만 명 가운데 약 11,00만 명은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입 인구.

- 2011년 선전시의 유동인구는 개혁·개방에 나선 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유입이 감소 (73,200 명 감소)함.
- 선전시의 2012년 1~2월 교역액은 5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.5% 감소함.
-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외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했고 임금마저 상승하여 제조업체들은 생산기지를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나 중국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함.

■ 중국의 경제 지형도 변화는 정부의 경제 불균형 해소 정책에 힘입어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.

- 중국 정부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가 중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힘.

(신화통신, 4/24)